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LX, 선포일로부터 2년동안... 시설물 전파·반과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면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축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띄워 수해 복구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함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전복, 집중호우 응급 복구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배수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응급 복구로 예보된 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폭우가 이어져 20일 오전 기준 저수지 개소점주 백석저수지,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제방 일부가

슬라이딩된 백석저수지는 방수포 및 매대를 설치해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이동식 사이펀을 설치해 수위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침수가 된 익산시 망성면 용안면 용성면 지역은 600mm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 금강 수위상승과 주변 소하천들이 범람하며 배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강변 인근 환산배수장과 청리배수장을 풀



가동하고 추가적으로 대형 엔진펌프 7대를 설치·가동해 신속한 배수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이번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해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호우가 집중된 기간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해 전사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비상근무 연인원 207명으로 배수장 8개소를 주야간 가동했고, 홍수조절을 위해 197개소의 저수지를 방류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수해 피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호우 대비 태세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군산 지역 한라비발디 2차 은파레이크뷰... 25일부터 신청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우선공급 제외업종은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군산 지역 한라비발디 2차 은파레이크뷰'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로 전북 군산시 지족동 332-1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주택유형은 84A 타입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

수는 총 24세대(확정추천 4세대, 예비추천 20세대)이다.

확정추천은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이며, 예비추천은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이다.

신청지역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의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8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vkr/sanlak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메뉴' 순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남부안농협, 사랑의 물김치 나눔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18일 '사랑의 물김치 나눔' 행사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영남) 회원 및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부안농협 냉동창고 앞에서 물김치 200개를 각 마을회관 및 침수피해 농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남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직접 구입한 재료로 손수 물김치를 담아 침수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면서 침수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여름철 무더위 대비 안부도 전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지역내 어르신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2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신바람나는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다.

농촌에 '새로운 바람'

전북농협, 신농촌 포럼 개최 도내 지속가능 100년 농촌 구현 목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지난 2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신바람나는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민·관·학 협력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전북대학교 백승우 학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소진 센터장,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정용준 회장, (사)한국농수산대학 청년연합회 전북지부 류효인 부회장, 전북신활력플러스추진단 최재문 단장, 청년농부사관학교2기 졸업생연합회 고태균 회장,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공동체 김기현 회장 등 전

북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전북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바람나는 농촌 만들기(가칭 신농촌 운동)'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농협의 역할을 찾아 전북의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목표로 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우리 전북농협은 변화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농업인과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도출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보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상품판매 기획 전문가 초청 상담

전북 경진원, 전북상품 유통채널 MD상담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지난 21일 로니관광호텔에서 전북상품 유통채널 MD초청상담회(이하 MD상담회) 개최했다. MD란 상품판매 기획 등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번 MD상담회는 전북도와 경진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연계해 추진한 행사로 도내 중소기업에게 국내 유통채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MD상담회는 쿠팡, 지마켓, 롯데마트, SK스토아 등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과 홈쇼핑 채널 등 15개사의 카테고리별 전문MD 20여명이 참석하여 펜데믹 이후 도내에서 이루어진 MD상담회 규모로는 최대 행사이다.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6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희망 채널사의 전문MD들에게 입점 및 문칭, 상품 트렌드 디자인, 브랜딩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또한 참여기업 상품홍보를 위한 쇼케이스 전시도 동시에 진행하여 유통채널 MD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경진원 관계자는 "향후 온·오프라인 커머스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PAIN POINT 분석과 심층상담 등을 함께 실시하여 온택트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